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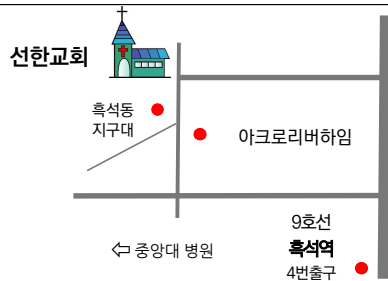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교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0장 (통일찬송가 101장)	
교 독 문	교독문 43 (시편 99편)	
찬 양 과 경 배	220장 (통일찬송가 278장)	
대 표 기 도	윤호중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13장 33절	
설 교	누룩 비유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사회자 : 김진만 전도사

자기 생각(예레미야 42:13~16)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각 부 서 총 회	11월 22일까지 각 부서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 사 위 원 회	유신웅, 박영근, 조계승, 구영서, 백영미	
3. 예 결 산 위 원 회	박대수, 조윤익, 윤호중, 최영석 손영삼, 김석범, 전희영, 이광순 ,류은영	
4. 교 회 봉 사 직 분 신 청 서	2021년도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12월 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금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6. 개 인 경 건 훈 련 안 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시편31편~시편114편] 4. 경건서적읽기: 부서별로 추천도서 독서후 나눔 (기간: 12월15일까지)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7. 수험생을 위한 기도	올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손진강, 손가은, 홍성호 / 수능일: 2020년 12월 3일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2. 수시모집 지원후 면접과 실기 준비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3. 어려움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되도록	
8.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예배

그릇과 같은 사람들

찬송 :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통 350)

본문 : 디모데후서 2장 20~26절

말씀 :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쓰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 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쓰임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함부로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않았지만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을 씁니까. 귀한 재료로 만든 그릇에 눈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재료로 만들었어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사용할 만한 그릇은 재료의 귀함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세속과 죄악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은 귀한 그릇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선 피할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연소한 나이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청년의 정욕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어리석은 욕심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요소들을 피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가 행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화평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따르며 살라고 우리를 불의와 불신, 미움과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는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귀히 쓰는 좋은 그릇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욕망을 피하고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을 따라 주님을 닮아감으로 깨끗해지길 원하십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누룩 비유 (마13:33)
서론	예수님께서서는 누룩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론	1. 누룩 비유의 의미 (1) 누룩: 성경의 누룩은 빵을 만들기 위해 미리 반죽한 덩어리(가루 서말)를 부풀게 하는 발효제(33절) (2) 누룩의 의미: ① 적은 양으로... ② 변화시키는 능력(‘부풀게 함’) - ‘겨자씨 비유’와의 차이점 ③ 놀라운 전염성(‘전부 부풀게 함’)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마16:6)과의 차이점 (3) 나의 누룩은? ①예수 그리스도 ②복음 ③말씀따라 사는 삶 2. 교훈 (1) 누룩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2)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3) 나로 인해 내 주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결론	누룩과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날짜 : 11월 23일
찬양	찬송가 86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본문	다니엘 4:1-18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할 때에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상을 받았지만 그 이상을 해석할 수 없기에 더욱 불안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 대한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여 그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의 승승장구로 말미암아 매우 교만하여진 상태였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자신에게 고하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에 따라 바벨론의 모든 박사가 와서 그의 꿈 내용을 들었으나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이상을 인간의 지혜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방 신을 섬기는 더러운 자들이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해석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였습니다.		
묵상질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찬양과 기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새 272)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존 비비어 목사는 「순종」에서 권위에 순종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존 비비어 목사는 청소년이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해 교회의 부흥 비결이 셀 그룹에 있음을 배웁니다. 교회로 돌아온 존 비비어 목사는 셀 그룹 전도 파티를 계획하고, 8개월간 준비합니다. 그런데 파티를 3주 남기고 교회가 셀 그룹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 자신은 옳고, 담임 목사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는 거니? 내 사역이나, 네 사역이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그가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셀 그룹 사역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리더들을 만나 자신감 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뻔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 방향이 셀 그룹이 아니라고 하셔서 취소되었어.” 존 비비어 목사는 그때가 인생과 사역에서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존 비비어 목사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신앙이 성장했으며, 그들 중 다수가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다니엘 4:28~37	
묵상포인트	느부갓네살왕은 한순간에 왕좌에서 쫓겨나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순간에 왕이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개인의 인생과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겸손히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신앙도 인생도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는가?’에 의해 판가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의 기준·목표·동기·방법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런 면에서 광야는 변화의 장소며 위장된 복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느부갓네살왕은 왕궁 지붕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그가 낮아진 7년 기한이 차서 하늘을 우러러본 후에는 어떤 말을 했나요?(30~36절)	
적용하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나요? 그 사건으로 신앙생활 및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나요?	
함께 기도하기	제가 주인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일에 겸손히 행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저를 낮추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 주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글씨를 해독하는 다니엘	날짜 : 11월 27일
찬양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본문	다니엘 5:13-23		
	벨사살이 분벽에 쓰여진 글을 해독하지 못하여 번민에 빠져 있을 때 태후가 찾아 왔습니다. 태후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비밀한 일들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부르면 벨사살 왕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태후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지혜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벨사살이 태후와 같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이 방자하게 행하여 멸망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다가 칠 년 동안 당한 고난을 기억하였다면 벨사살은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셔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음을 먼저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 들에서 유리하게 되었음을 회고하였습니다.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교훈을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징계를 당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였는데, 이는 벨사살 왕이 부친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한 것에 대한 책망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벌하셨듯이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묵상질문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다니엘의 꿈 해석	날짜 : 11월 24일
찬양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본문	다니엘 4:19-27		
	바벨론의 박사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어려울 것 없는 줄을 안다고 진술하며 그에게 꿈의 내용을 고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진술대로 다니엘이 비밀한 것들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이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창대케 되어 땅 끝까지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루어지는 일임을 다니엘은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자가 나무를 자를 것을 명하였는데, 이는 나무의 교만함을 인하여 심판을 명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순찰자가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라고 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지는 아니하심을 의미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남을 당하여 들짐승들과 같이 거하며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며 일곱 해를 지내게 됨으로써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주권으로 원하시는 자에게 권세를 주심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질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왕위로 복귀시키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임을 다니엘은 고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푸시리라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교만으로 넘어진 경험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느부갓네살의 꿈 성취와 회개	날짜 : 11월 25일
찬양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본문	다니엘 4:28-37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며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큰 바벨론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신의 도성을 삼고 그것들로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는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평안히 거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이와 같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징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던 일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의 업적을 찬양하며 영광을 취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나라의 위가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일곱 때를 그와 같이 지내다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리는 동시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칠 년 동안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묵상질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벨사살의 교만과 심판 계시	날짜 : 11월 26일
찬양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본문	다니엘 5:1-12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는 귀인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 온 은, 금 기명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는 벨사살 왕이 이웃 나라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로 자신이 베푼 잔치에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신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벨사살 왕과 잔치에 참석하였던 자들은 여호와의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곧 정복국에서 섬기는 신이 피정복국의 신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손에 붙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술을 마시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낮빛이 변하여 질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징조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여 분벽에 쓰인 글씨를 해독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 글씨는 인간 세상의 문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의 명으로 바벨론의 박사들이 모두 모여 글씨 해독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해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해독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입니다.		
묵상질문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경험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